Part 1 — 돈의 종말

두 곡선의 데칼코마니 — 데나리우스 95%와 달러 97%

· 정리 2026-05-14

같은 95% 손실,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

2,000년 전 로마 데나리우스는 BC 27년 은 함량 98%로 시작해 AD 270년대에 5%까지 떨어졌습니다. **약 300년에 걸친 95% 가치 손실**입니다.

그런데 시간을 잘게 자르면 **가속의 정체**가 드러납니다. 1구간(95% → 45%)에 220년이 걸렸는데, 2구간(45% → 5%)은 단 70년에 끝났습니다. **산술급수 1·2·3이 아니라 1·2·4·8·16의 기하급수**입니다.

지금 미국과 한국이 같은 곡선을 더 짧은 시간에 압축하고 있습니다. 달러는 112년에 95% 손실, 원화는 1962년 이후 63년에 1,150분의 1 토막. **다음 가속이 어디서 멈출지**가 이 회차의 출발점입니다.

이 회차는 그 패턴을 **5단계 메커니즘 + K자형 화폐 + 다극화 시나리오**로 풀고, 강의가 짚은 보존 전략 세 가지 신호로 닫습니다.

1,150배

1962년 1.25원이던 환율이 2025년 1,440원이 됐습니다.

> 다음 30년은 어떻게 될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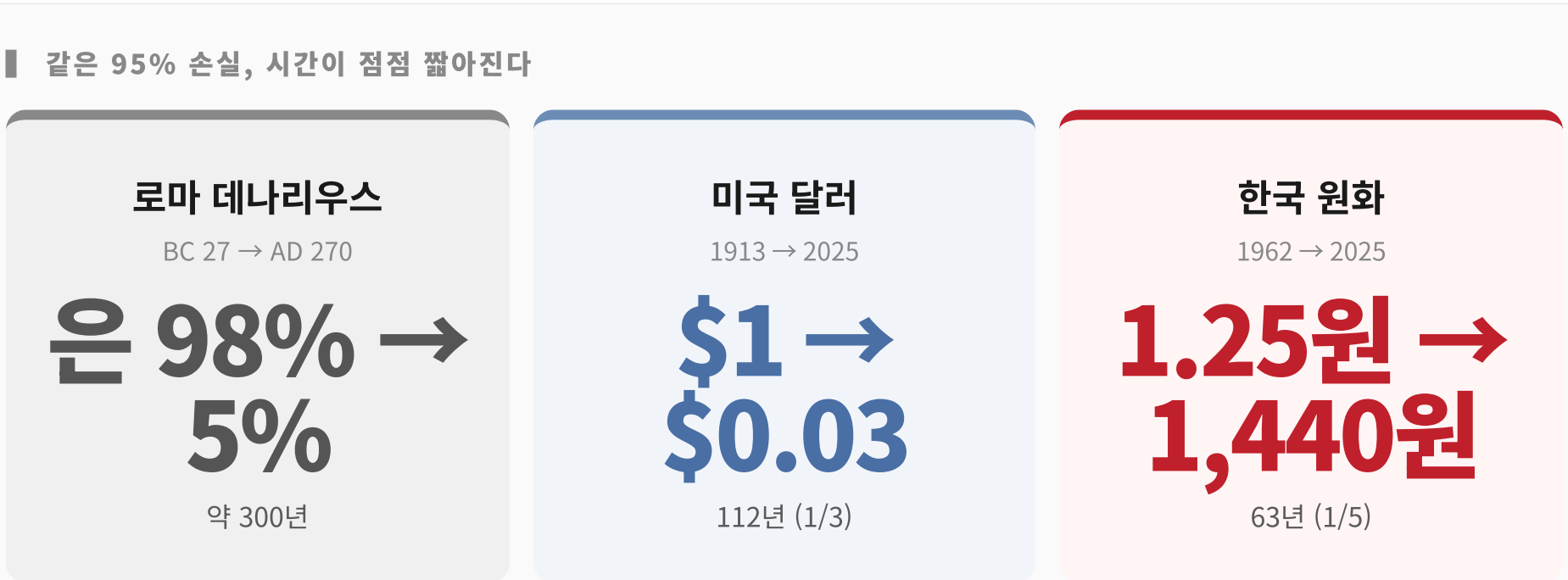
300 → 112 → 63년 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

산술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입니다. 같은 95% 가치 손실을 로마는 300년에, 미국은 112년에, 원화는 63년에 압축했습니다. 시간 단위가 1/3, 1/5로 점점 짧아집니다.

로마 데나리우스는 BC 27년 은 함량 98%로 출발해 AD 270년대 5%까지. 미국 달러는 1913년 1달러 구매력이 2025년 0.03달러. 한국 원화는 1962년 1.25원 환율이 2025년 1,440원 — **63년에 1,150분의 1 토막**입니다.

처음에는 느려 보입니다. 30년 전 "1달러 가치가 0.5달러 되겠어?" 하고 묻던 사람이 옳아 보였습니다. 그러나 가속이 일단 시작되면 같은 5%p 하락이 200년이 아니라 5년에 일어납니다 — **이 가속은 단일 정책 결정이 아니라 누적된 황제·대통령들의 연쇄가 빚는 곡선**입니다.

다음 30년이 어디서 끊길지 모른다는 점이 이 회차의 질문입니다. 다음 카드에서 데나리우스 안에서의 가속 곡선을 황제별 정밀 데이터로 들여다봅니다 — 1·2·4·8·16의 기하급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.



데나리우스 안에서의 가속 — 220년 + 70년

데나리우스 안에서 시간을 잘게 자르면 가속이 또렷합니다. **1구간(95% → 45%)에 220년이 걸렸지만, 2구간(45% → 5%)은 단 70년에 끝났습니다.**

외부 자료가 강의 곡선을 황제별 정밀 데이터로 검증합니다(†1). 아우구스투스기 95~98%, 네로(54~68) 시기 약 93%로 첫 인하. **셉티미우스 세베루스(193~211)에 50%, 카라칼라(215~217)가 도입한 안토니니아누스는 40%, 아우렐리아누스(270~275)가 5%**로 떨어뜨렸습니다.

강의 곡선과 학술 데이터의 큰 흐름은 동일합니다. 다만 **단일 황제의 결정이 아니라 250년에 걸쳐 누적된 황제들의 연쇄였다**는 점이 추가 시각으로 들어옵니다 — 가속이 한번 시작되면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.

처음에는 느려 보입니다. 가속 구간에 들어서면 같은 5%p 하락이 200년이 아니라 5년에 일어납니다. 다음 카드에서 21세기의 가속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봅니다.

데나리우스 함량 변화 — 황제별 가속

† 1 Wikipedia / TheCollector — 데나리우스 함량 학술 자료 wikipedia.org

닉슨 쇼크와 우리 동네 — 80년 1,150토막

미국 달러 가치 하락의 본질적 시작점은 **1913년 연방준비제도 설립**입니다. 경제 위기 때마다 달러를 대량 발행하는 구조가 그때 자리잡았습니다.

결정타는 1971년 **닉슨 쇼크 — 금태환 중단**이었습니다. 금이라는 닻이 사라지자 중앙은행이 이론상 무제한으로 돈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이 됐고, 데나리우스 2구간 가속과 똑같은 곡선이 시작됐습니다.

한국은 더 빠릅니다. 1962년 1.25원이던 환율이 2025년 1,440원입니다. **63년에 1,150분의 1 토막**. 1945년 대비로는 **10만분의 1 토막**입니다.

외환위기 이후 약 20년의 안정기를 "환율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대"로 받아들이면 위험합니다. 그 20년은 **만성적 하락 흐름 안의 짧은 평지**일 뿐입니다. 같은 기간 1962년 70만 원짜리 토지가 2025년 70억 원으로 1만 배 — 화폐가 떨어진 만큼 자산이 오르는 구조입니다.

한국 원화 80년 — 1,150토막

왜 안 멈추지? — 1·2단계

"돈을 덜 찍으면 되지 않나요?" — 답은 단호합니다. **"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."** 종신 집권한 군주조차 부채와 돈 풀기를 절제하지 못했고, 4년 임기제 대통령은 임기 안에 부담을 짊어질 동기가 더 작습니다.

1단계 성장의 정체. 로마는 정복 활동이 멈추는 시점부터 파이가 더 안 커졌습니다. 근현대에는 인구 감소·금리 상승·생산성 정체가 같은 역할. **이는 정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**입니다.

2단계 자산 불평등.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기득권은 자산 가격 폭등으로 부를 집중시킵니다. 새 돈은 자산가가 먼저 받고 서민이 가장 나중에 받기 때문입니다(캔틸런 효과). 로마에서는 토지를 100평 → 1,000평 → 5만 평으로 늘리는 식이었고, 21세기 부동산·주식 보유 격차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.

다음 카드에서 3·4·5단계 — 부채·돈 찍기·인플레이션의 종착점을 봅니다.

1·2단계 — Stagnation + Wealth Concentration

1

성장의 정체

Stagnation

정복·확장 종료 또는 인구·생산성 둔화. 정치 의지 X, 구조 문제.

→

2

자산 불평등

Wealth Concentration

기득권이 자산 가격 폭등으로 부 집중. 캔틸런 효과 — 새 돈은 자산가가 먼저, 서민은 나중.

5단계 — 부채·돈 찍기·인플레

3단계 과도한 부채. 기득권은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막는 데 정치력을 동원하고, 중산층이 무너져 세수 기반이 붕괴합니다. 로마 후기는 속주 무역에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세수를 메우려 했고, 21세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같은 패턴을 닮았습니다.

4단계 무제한 돈 찍기. 채권자의 신뢰가 무너지면 자국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를 매입합니다. 미국 부채는 2017년 20조 → 2025년 38조 → **2029년 45조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**되며, 강의가 짚는 최후의 단계는 연준의 미국 국채 직매입입니다.

5단계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. 로마는 235년부터 50년간 **1,000% 물가 상승률**을 기록했고, 280년경 환전상들이 로마 은화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— 신뢰의 종착점.

다음 카드에서 약소국과 제국이 같은 부채 위기 앞에서 왜 다른 길을 걷는지 봅니다.

▌3·4·5단계 — Debt → Monetization → Hyperinflation

3

과도한 부채

Debt Trap

세수 기반 붕괴 → 빚으로 재정. 美 부채 2017년 20조 → 2025년 38조 → 2029년 45조 추정.

→

4

무제한 돈 찍기

Direct Monetization

채권자 신뢰 붕괴 → 중앙은행 직매입. 강의 추정 최후 시점 2029년.

→

5

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

Hyperinflation

로마 235년부터 50년간 1,000% 물가 상승. 280년 환전상이 은화 거부 — 신뢰의 종착점.

약소국 vs 제국 — 같은 부채 위기, 다른 결말

부채 위기는 약소국과 제국 모두에 닥치지만, **결말이 다릅니다**.

약소국은 IMF 구제금융과 뼈아픈 구조조정으로 빠르게 빠집니다 — 그리스가 대표 사례.
패권국가는 자국 통화에 대한 헛된 자신감으로 무한 발행 → 통화 위해의 가속을 택합니다.

(스스로 강대국으로 착각하는) 프랑스조차 IMF 경고가 나오자 정치인들이 "**우리가 그리스냐**"며 국민을 선동했습니다. 패권국이 긴축이 아닌 돈 풀기로 갈 수밖에 없는 정치적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

제 아무리 패권국가라도 마지막 선택지는 국채 무한 발행 + 중앙은행의 매입입니다.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마다 결국 한도를 늘리는 식으로 끝낸 게 그 증거입니다. 다음 카드에서 312년 로마가 도입한 가장 충격적인 화폐 분리를 봅니다.

▌ 약소국 vs 제국의 결정적 차이

변수	약소국 (그리스)	패권국 (미국·프랑스)
부채 위기 대응	IMF 구제금융 + 구조조정	통화 무한 발행 + 중앙은행 직매입
속도	빠르고 뼈아픈 단기 충격	느리고 긴 통화 위해의 가속
정치 동기	선택지 없음 (강제)	"우리가 그리스냐" — 선동 가능
결말	통화·부채 동시 안정 (긴축)	통화 가치 하락 + 자산 가격 폭등

312년 K자형 화폐 — 솔리두스와 눈무스

3세기말 로마는 화폐를 둘로 분리했습니다. **솔리두스**(순도 99% 금화)는 황제·고관 임금, **눈무스**(구리에 은 코팅)는 서민 임금이었습니다.

결정적이었던 건 **세금**입니다. 정부는 세금을 솔리두스로만 받았습니다. 서민은 매일 가치가 떨어지는 눈무스로 임금을 받고, 세금 낼 때마다 그 눈무스를 솔리두스로 바꿔야 했습니다 — **일하는 만큼 가난해지는 "바터거지" 구조**.

310~340년 30년간 솔리두스 보유자는 **+4,000배 이상**, 곡물·가축·토지 보유자는 +500배, **눈무스만 보유한 자는 사실상 100% 상실**이었습니다. 한 세대 안에 자산을 어떤 형태로 들고 있었느냐에 따라 4,000배 이상 차이.

다음 카드에서 이 K자형 화폐가 21세기에 어떻게 정량으로 재현되는지 봅니다.

K자형 화폐 — 30년에 4,000배 갈라짐

변수	솔리두스	눈무스
구성	순도 99% 금화	구리에 은 코팅 (Silver Wash)
수령자	황제·군 장성·고위 관료	서민·노동자
세금 납부	받음 (가치 보존)	솔리두스로 환전 후 납부
30년 가치 변동 (310~340)	**+4,000배 이상**	**사실상 100% 상실**
21세기 등가	금 + 달러 자산 + 부동산·주식	임금 의존 + 자국 통화 현금

K자형의 21세기 등가 — 자산 31.7% vs 임금 +1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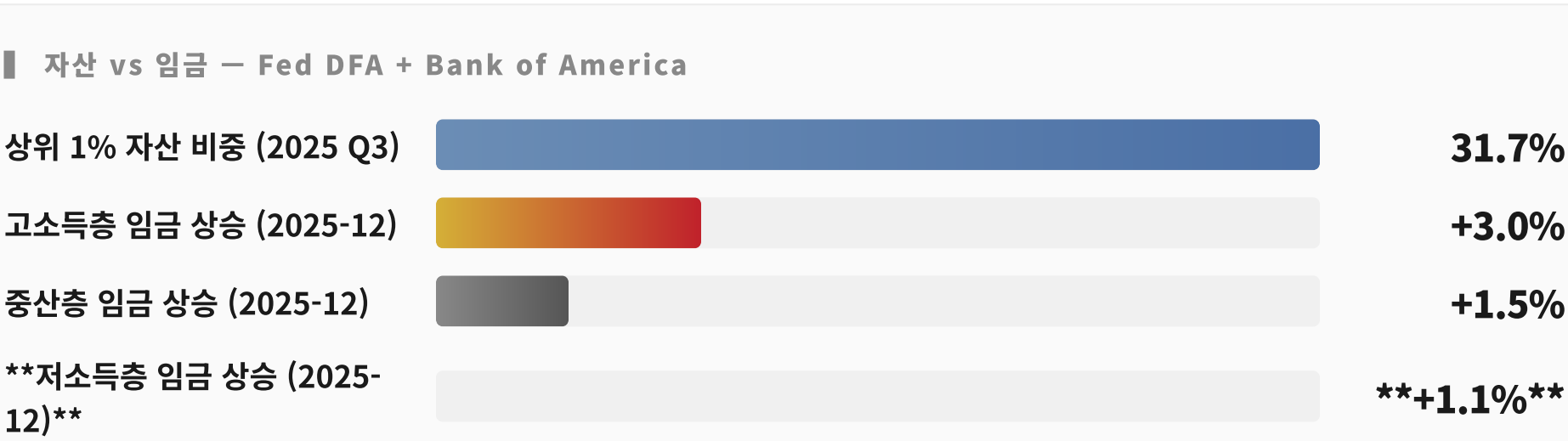
솔리두스/눈무스는 21세기에 그대로 옮겨졌습니다. 자국 통화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매일 가치가 떨어지는 통화 위해를 직접 받아들이고, 자산 보유자는 부동산·주식 가격 상승을 흡수합니다.

외부 자료가 정량으로 보여줍니다(†2). 미 연준 DFA 기준 **2025년 3분기 미국 상위 1%가 보유한 자산 비중은 31.7%로 1989년 이래 최고치**. 1990년대 22%에서 35년에 +10%p.

더 결정적인 것은 **임금 격차**입니다. Bank of America 2025년 12월 — 고소득층 임금 +3% / 중산 +1.5% / **저소득층 +1.1%. 자산은 1989 이래 최고로 집중되고 저소득층 임금은 사실상 정체** — 솔리두스/눈무스의 21세기 정량 등가입니다.

다행인 건 21세기에는 **중산층도 솔리두스(금)를 일부 보유할 수 있다**는 점입니다. 다음 카드에서 3세기 후반 무역망 마비가 21세기에 어떻게 재현되는지 봅니다.

▌ 자산 vs 임금 — Fed DFA + Bank of America



자산은 1989 이래 최고로 집중되고, 저소득층 임금은 사실상 정체. 솔리두스/눈무스의 정량 등가.

† 2 CBS News / Federal Reserve DFA — 미국 자산 분포 + 임금 격차 cbsnews.com

3세기 후반 무역망 마비 = 디커플링

가속이 또 한 번 나타나는 곳이 **3세기 후반 지중해 무역망의 마비**입니다. 로마 제국이 속주 무역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한 결과 + 로마 은화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자국 통화 무역이 중단됐습니다.

자고 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눈무스는 로마 제국 내부에만 통용됐고, **국경을 넘는 결제 수단은 금화 솔리두스만 남았습니다**. 무역 거래는 자국 통화의 형태가 아닌 금이라는 보편 자산으로만 이루어졌고, 그 결과 솔리두스의 가치는 더욱 부각됐습니다.

이 흐름은 21세기에 **디커플링·리쇼어링·프렌드쇼어링**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, 중국이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점에서, 두 진영 사이의 거래에서 자국 통화의 영향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.

디커플링은 "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단절하는 현상". 리쇼어링은 "해외로 나갔던 제조업을 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" — 미국 반도체 공장 자국 건설이 그 예. 프렌드쇼어링은 "우방국끼리 공급망을 구축" — 한국·일본·대만 등 동맹국 중심.

세계화 시대에는 가격이 경쟁력이었지만 지금은 신뢰가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사이 결제 수단으로 무엇이 부각되는가? 그것이 금입니다. 강의 본문이 짚는 핵심: "미국과 공급망이 분리되면 국경을 넘는 결제 수단은 금이다."

이 시나리오는 추상적 가정이 아닙니다. 중국과 인도, 브릭스 국가들이 이미 적극적으로 금을 사재기하는 중이고, 외환보유고 구성에서 달러를 빼고 금을 늘리는 방향이 뚜렷합니다. 다음 카드에서 그 변화를 정량으로 확인합니다.

21세기의 솔리두스 — BRICS+ 6,000톤과 -14%p

"중국과 인도,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사재기하는 이유"는 로마 후기 솔리두스 부상과 같은 흐름입니다. 외부 자료가 정량으로 확인합니다(†3).

BRICS+ 보유 6,000톤 초과 / 글로벌 17.4% (2019년 11.2% → 2025년 17.4%, +6.2%p). 2025년 중앙은행 매입 863톤(WGC). **달러 비중 IMF COFER 2025 Q4 56.77% — 1994년 이래 최저, 1999년 71% 대비 -14%p**.

WGC 2025 설문은 더 결정적입니다. **73%가 향후 5년 달러 비중 하락을 전망 / 43%가 금 보유를 늘릴 계획** — 모두 사상 최고 응답률입니다.

구조적 트리거는 **2022년 러시아 외환보유고 약 3,000억 달러 동결** 사건 — 다른 나라 금융 시스템에 보관한 외환은 압류 가능하다는 신호. **금은 외국 관할권 밖에 있다**는 점에서 국경을 넘는 21세기의 솔리두스 등가입니다.

BRICS+ 6,000톤과 탈달러 14%p

지표	데이터	비고
BRICS+ 금 보유량	**6,000톤 초과 (글로벌 17.4%)**	2019년 11.2% → 2025년 17.4%
2025년 중앙은행 매입	863톤	3년 연속 1,000톤+ 후 첫 미달
달러 비중 (IMF COFER)	**56.77% (1994 이래 최저)**	1999년 71% 대비 **-14%p**
WGC 2025 설문 (1)	73%가 달러 비중 하락 전망	사상 최고 응답률
WGC 2025 설문 (2)	43%가 금 보유 늘릴 계획	사상 최고 응답률

† 3 World Gold Council / IMF COFER — BRICS+ 금 + 탈달러 gold.org

다극화 시대 — 레이 달리오의 착각

"미국이 몰락하면 자연스럽게 중국이 다음 패권국이 된다" — 레이 달리오의 배턴 터치 모델입니다. **그러나 인류 역사를 단순화한 것입니다.**

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. 스페인·네덜란드·영국 모두 200년 사이클을 겪었고, 미국 역시 1913년 연준 설립 이후 사이클의 후반부에 들어섰습니다. 다만 "끝이 임박했다"는 경고를 너무 일찍 한 탓에 레이 달리오는 시장에서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았습니다 — **분석이 틀린 게 아니라 시점이 너무 일렀을 뿐**입니다.

진짜 오류는 **다음 단계의 가정**에 있습니다. 로마 제국 몰락 이후 약 1,000년간 단일 패권국은 없었습니다. 동로마와 여러 세력이 분점한 긴 시기가 이어졌고, 신항로·산업혁명 같은 큰 전환점이 있어야만 다음 단일 패권이 자리잡았습니다. **단일 패권 → 단일 패권의 자동 교체는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.**

유럽연합도, 일본도, 중국도 단일 패권을 가져갈 결정 권한이 부족합니다. 미국 약화 이후는 **다극화 시대**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. 국경을 넘는 결제 수단도 달러 일극에서 **달러와 금의 경쟁 체제**로 전환됩니다.

이미 신호는 진행 중입니다. 앞 카드의 BRICS+ 6,000톤·달러 -14%p가 그 정량 증거. 강의는 **단일 시나리오(미국 몰락 / 중국 부상) 베팅의 위험과 가치 저장 수단 분산 보유의 중요성**을 짚습니다. 다음 카드에서 단일 시나리오 베팅의 사례 — 튀르키예 에르도안 함정을 봅니다.

에르도안 함정 + 노선 전환 — 평행이론 nuance

"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내려간다."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밀어붙인 논리입니다. 결과는 **M2 30배 / 인플레 85% / 환율 24분의 1 토막**.

한국으로 옮기면 **지금 1,300원 환율이 3만 원이 된 셈**입니다. 같은 기간 부동산은 14배 올랐지만 달러 환산하면 **41% 하락** — 통장 숫자만 보면 부자가 된 것 같지만 해외에 한 번 나가보면 그 사이 세계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체감됩니다.

핵심은 **트럼프의 연준 압박 논리가 에르도안과 놀랍도록 유사**하다는 점입니다. "우리는 다르다"는 자신감이 있어도 진행은 닮은 곡선을 그립니다.

다만 강의 인용 사례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(†4). **2023년 에르도안은 새 경제팀을 임명하며 정통 정책으로 노선을 전환**했고,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2026년 3월 정책금리 37%로 첫 동결(5번 연속 인하 후). 2026년 인플레 목표 16%, 중기 5%.

"평행이론은 정책 동기의 닮음이지 결과의 자동 반복은 아닙니다." 트럼프 역시 닉슨 사례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정확히 같은 결과를 낳지는 않을 수 있다는 nuance — 다만 그 결과는 정책 결정자의 선택과 외부 충격이 동시에 빚는 함수입니다.

튀르키예 — 통화량 30배의 결말 + 2026 노선 전환

지표	변화 (2012 → 2025)	비고
M2 통화량	7,400억 → 22조 2,000억 리라	**30배 증가**
인플레이션 정점	85% (2022.10)	1년 안에 폭등
USD/TRY 환율	1.8 → 43	**24분의 1 토막**
부동산 (명목)	120 → 1,650 (14배)	달러 환산 -41% 하락
2023~2026 노선	정통 정책 회귀 + 2026-03 첫 동결	강의 인용 후 변화

† 4 Türkiye Today — CBRT 2026 monetary policy calendar turkiyetoday.com

강의가 짚은 보존 전략 3가지 신호

다음 30년의 격차를 가르는 것은 **자산을 어떤 형태로 들고 있느냐**입니다. 본 회차가 권하는 베이스라인 셋입니다.

① **솔리두스 후보를 분산해 보유.** 1순위는 금이고, 다음은 달러 표시 자산. 다극화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큰 환경에서 단일 시나리오(미국 몰락 / 중국 부상)에 베팅하지 말고 가치 저장 수단을 후보별로 분산합니다.

② **명목 자산의 함정을 인식.** 자산 가격을 자국 통화로만 측정 X. 튀르키예 부동산처럼 명목 14배 상승해도 달러 환산 41% 하락 사례. 달러·금·실물 등 여러 단위로 환산해 보는 관점이 강의의 핵심. 측정 단위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명목 상승에 안심하다 실질로는 후퇴합니다.

③ **매월 임금의 일부를 솔리두스로 환산.** 외부 자료(†2)가 보여준 임금 격차(저소득층 +1.1% vs 자산가 +31.7%)는 **임금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**라는 신호입니다. 21세기에는 중산층도 솔리두스(금)를 일부 보유할 수 있는 환경 — 매월 임금의 일부라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환산해 두는 것이 30년 뒤 격차를 가릅니다.

30년 뒤 격차를 가르는 건 **큰 결정 한 번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누적**입니다. 화폐 가치 하락은 산술이 아니라 기하급수 — 다음 가속이 어디서 끊길지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, 우리는 어떻게 들고 있을 것인가.

다음 30년의 격차 — 자산을 어떤 형태로 들고 있느냐

화폐 가치 하락은 산술이 아니라 기하급수입니다. 로마가 300년에 한 일을 미국은 112년, 원화는 63년에 압축했고, 다음 가속은 더 짧은 구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튀르키예 부동산이 14배 올랐어도 달러 환산 41% 하락한 사례를 기억하면, 명목 자산 가격을 자국 통화로만 측정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입니다. 강의는 **다극화 시대에 단일 시나리오 베팅의 위험과 가치 저장 수단 분산 보유의 중요성**을 짚습니다.

다행인 것은 21세기에는 중산층도 솔리두스(금)를 일부 보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**매월 임금의 일부라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환산해 두는 것** — 그것이 다음 30년의 격차를 가릅니다.

> 한 줄로 — 화폐 가치 하락은 산술이 아니라 기하급수. 다음 30년의 격차는 자산을 어떤 형태로 들고 있느냐가 가른다.

다음 회차 예고 — Part 1-3 (2026-01-15)

고물가가 뉴노멀이 된 시대

본 회차의 5단계 중 5단계(인플레이션)의 직접 후속. 2025-12 파월의 유사 양적완화 + 12~18개월 시차 + 1972년 닉슨/번즈 평행이론으로 확장.

박종훈의 지식한방 Part 1-2강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. 투자 권유가 아니라 강의 핵심 논지와 외부 자료 보강을 통해 더 풍부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한 요약입니다.

지표 출처: en.wikipedia.org · thecollector.com · cbsnews.com · federalreserve.gov · gold.org · ebc.com · data.imf.org · turkiyetoday.com